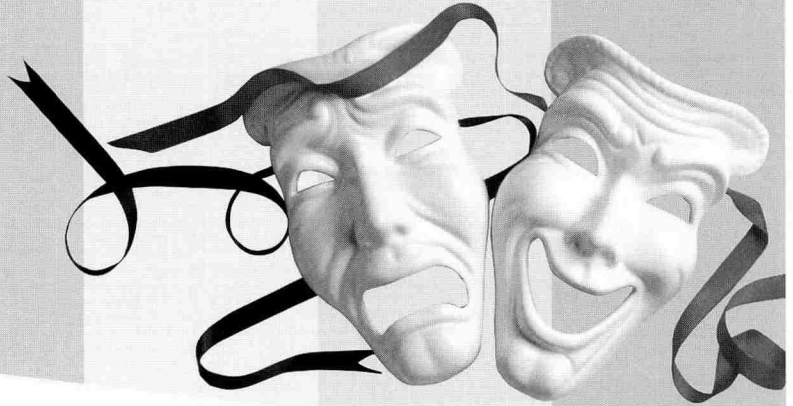


# 한·미 FTA 등 농업협상 동향

## Free Trade Agreement



### 01 한미 FTA 농업분과 제6차 협상 결과

#### 1. 제6차 협상개요

- 제6차 협상은 1. 15~19일 서울에서 개최
  - 농업분과 협상은 1. 16~18일 개최되었으며, 서비스·투자분과 협상에도 참석
  - 이번에 위생·검역(SPS) 분과 협상은 개최되지 않았으며, 원산지 분과는 1.23~25일간 별도 개최 예정.
    - ※ 양측 대표단은 우리측 260여명(농림부 25명 포함), 미측 80여명 참석
- 농업 분과는 제5차 협상에 이어 미합의 품목의 양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
  -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태이며,
  -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 중 의견이 접근된 품목도 있

었음.

- 국제농업국장, FTA2과장, 식량정책과장, 축산정책과장 등 18명 참석
- 앞으로 농업 분과의 핵심 논의사항은 민감품목에 대해 양측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양허안을 마련하는 것이며, 이를 위해서는 상당 시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.

#### 2. 주요 논의 사항

- 미정(Undefined) 품목을 포함한 민감품목의 양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나, 입장차가 커서 상당 수준 추가 논의가 필요
- 우리측은 미정 품목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양허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,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음.
  - 품목별 민감도와 시장특성에 따라 농산물 세이프가드, 수입쿼타(TRQ), 세 번 분리, 관세 감축 유예, 부분감축 등 방안을 논의

- 미측은 다양한 대안의 검토에 적극적이거나, 여전히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
  - 다만, 민감품목 중에서도 미국의 수출이익이 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미측이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표명
- 민감성이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의견 접근
  - 민감도가 다소 낮더라도 미국의 수출액이 큰 주요 품목은 최종 단계에서 합의유도
- 농산물 셰이프가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나,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태
  - 우리측은 농산물 셰이프가드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전달
    - 대상품목(주로 고관세 품목), 발동기준, 추가 관세 부과방식 등을 제시하고 관세철폐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작성
  - 미측은 품목이 제한되어야 하며, 셰이프가드를 적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

- 관세가 철폐되면 셰이프가드 적용도 중단
- 관세철폐 후 제도 존속 여부가 양국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

### 3. 향후계획

- 이번 6차 협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적용 가능한 대안을 재검토
  -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 셰이프가드, 수입쿼타, 관세비선형 감축 유예 등 다양한 방식의 적용 가능성 검토
  - 농산물 셰이프가드에 대해서는 6차 협상에서 양측이 교환한 입장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대안을 마련
- 민감 품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지속하되, 제7차 협상에서는 전체 협상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 협상 진전수위를 결정
- 국회와 농업계에 협상동향을 상세하게 전달하고, 민감품목 협상전략 구체화 과정에 농업계 전문가 및 품목단체 참여 유도